

재난문자 상세정보 제공 시범운영 전국 확대, 여름철 재난정보 전달 강화

- 재난문자 글자 수 90자에서 157자로 확대, 유사·중복 문자 사전 검토 기능 추가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께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, 재난문자의 글자 수 확대와 유사·중복 사전 검토 기능의 시범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.

지금까지 재난문자는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돼, 구체적인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. 또한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재난 문자를 반복 발송해 수신자의 피로감을 높이고 정보 전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.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충북·경남·제주에서는 재난문자 글자 수 157자 확대를, 부산·세종에서는 유사·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을 시범 운영했다. 그 결과 두 기능 모두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됐으며, 특히 사전 검토 기능을 통해 기상특보 관련 중복 재난 문자 발송이 최근 6개월간 80%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.

이에 따라, 5월 15일(금)부터 157자 재난문자를 여름철 재난을 대상으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재난발생 지역, 위험 상황, 대피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. 다만, 이 서비스는 ‘안전 안내문자’에만 적용되며, ‘위급재난문자’와 ‘긴급재난문자’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자로 제한해 운영한다.

또한, 유사·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도 전국으로 확대한다. 재난문자 발송 시 기존 발송 이력을 화면에 표출해 담당자가 중복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 발송을 줄인다.

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“집중호우와 같은 여름철 재난은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, 국민께 필요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재난문자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재난 상황 정보와 행동요령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	책임자	과 장	신승인 (044-205-5280)
		담당자	전문관	권구열 (044-205-5309)



재난문자 157자로 확대, 중복문자 줄어서 더 좋아요!

더 자세한 정보는 받고, 불필요한 정보는 줄고!



157자로 확대되어
“호우” 행동요령을 상세히
받아볼 수 있어요!

- ✓ 기상 상황·피해 예상·행동요령을 한번에 전달
- ✓ 같은 내용의 중복 문자는 줄이고, 꼭 필요한 정보만
- ✓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국민 안전을 지킵니다



유사·중복 문자가
줄어서 정말 좋아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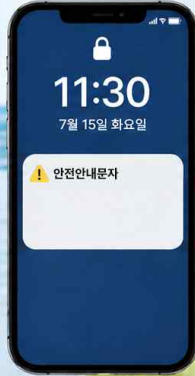


호우

00:00 00지역 집중호우,
외출 자제, 하천 범람, 산사태 붕괴
우려 시 안전한 곳(00)으로 이동
//
위험지역(지하차도·지하주차장·
하천변 산책로 등)은 출입 금지,
반지하 등 지하 공간 침수 우려 시
즉시 지상 대피 후
119 신고 바랍니다.
[00시]

157자

미리 대비하고, 안전하게 행동해요!



기존(중복발송)

안전안내문자	11:20
00시 호우주의보 발효..	
안전안내문자	11:21
00시 호우주의보 발효..	
안전안내문자	11:22
00시 호우주의보 발효..	

↓

개선(중복필터링)

안전안내문자	11:20
00시 호우주의보 발효..	

필요한 정보만 딱!

